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적극 지원

전북여성가족재단, 근로시간 단축 수당지원·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 등 본격 추진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워라밸 실천과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올해 지자체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이뤄진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워라밸 인식개선, 지역사회 문화확산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 수당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 △가족친화인증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등 도내 기업의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해 시행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소속 근로자 및 사업주는 의료, 숙박, 식품, 외식 분야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거나, 중앙부처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금리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을 통한 추가 인증기업 발굴 △사업주 대상 고용부 기업지원 정책활동 컨설팅 △일·생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거점기관 공동 협력 △워킹맘·대리 워라밸 가족학교 △미래를 앞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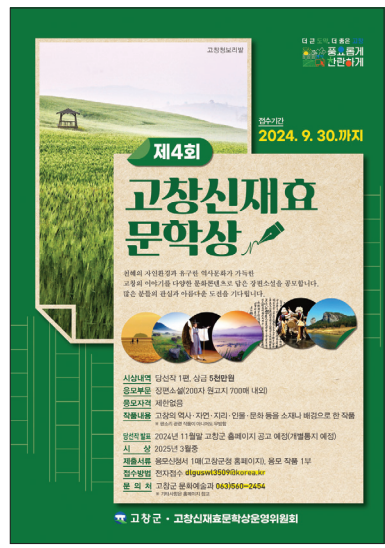
는 일·생활균형 선도기업 경진대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 △일·생활균형 홍보를 위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금요일에 만나요) 주간 행사 등 지속적으로 기업의 일터 혁신과 도민의 일·생활균형 문화 인식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도내 기업과 근로자들에 제공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취업지원팀(253-385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작품 공모

창작장편소설 분야 전국 공모... 당선작 시상금 5000만원 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작했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일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시상하여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문화관광지원을 위하여 제정됐다.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창작장편소설 분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당선작에는 대한민국 문학상 최고 수준에 상응하는 5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신인과 기성작가를 막론한 수많은 작가가 참여해 고창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도 제작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

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최종당선작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주제는 고창의 역사·자연·지리·인물·문화 등을 소재로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판소리 관련 작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포함된 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시상 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을 통해 누구나 문학을 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문학인을 발굴하겠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문학인의 도전과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리닝·영사 매니저 공모

3월 11일까지 이메일 접수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올해 영화제 상영작 확인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할 스크리닝 매니저와 영사 매니저를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는 전주국제영화제 기술팀 이메일(tech@jcojfest.kr)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스크리닝 매니저와 영사 매니저는 관련 경력과 경험이 없는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된 스태프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검색 및 정보 확인, 상영관 영사 테스트 등 상영 전 준비 작업

과 상영관·영사실 관리, 영사 사고 대처 및 관객 응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매년 영화제 전문 인력 양성과 영화 산업 발전을 목표로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 약 3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jcojfest.kr/) 공지사항이나, 전주국제영화제 기술팀(063-280-7982)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1~10일까지 열릴 전주 영화의거리(비룡)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정은성 기자



장수군과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위원장 김진우)이 주관한 '시간공 안성 강원도 관찰사 고신왕지'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장수 역사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장수군,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 추진

'시간공 안성 강원도 관찰사 고신왕지' 지정 위한 학술심포지엄 가져

장수군과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위원장 김진우)이 주관한 '시간공 안성 강원도 관찰사 고신왕지(告身王旨, 왕의 임명장)'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장수 역사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시간공 안성 강원도 관찰사 고신왕지'는 1414년(태종14년)에 발급된 왕의 임명장으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유산 제143호(1993년)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1주제로 전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김건우 교수가 '안성 고신왕지의 가치와 의의', 제2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공목 명예교수가 '안성의 관직생활과 정치적 상황'을 발표했다. 심포지엄 사회 및 좌장은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정민교수가, 토론은 한국학 호남진흥원 조광현 연구위원과 한국 유교문화진흥원 장음연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선 초의 왕지로 회소성이 높은 점과 임명권자인 왕과 인사 검증기관인 시간원(사헌부)의 갈등, 교지에 찍힌 왕의 도장에 담긴 역사성 등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으며, 향후 과제로는 장수군에 거주



시간공 안성 강원도 관찰사 고신왕지

하는 광주안성 문종의 소장 및 관리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에 최훈식 군수는 "의미 깊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가 재조명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원 여행가는 달' 운영... 3월까지 입장료 할인 등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일부터 2024년 태권도원 여행가는 달'을 맞아 3월 31일까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4인 가족 기준(성인 2명, 아동 2명) 1만 4천 원이던 입장료가 7천 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 기간 태권도원 상설공연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주말 및 삼일절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올해 완전히 새로워진 상설공연 '태권도사' 관람 후에는 공연단원들과 기념촬영 및 태권체조, 미트 광광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특히, 3월 29일부터는 태권도원 상설공연을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과 오후 2차례로 확대 운영한다.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와 상설전시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태권도 라키

비움'도 둘러볼 수 있다. 태권도 영상 기록물을 선별해 자신만의 자료를 만든 후, QR코드를 활용해 내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 라키비움'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이외에도 AR·VR 장비를 착용하고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 YAP!'과 봄을 향해 가고 있는 백운산과 덕유산, 민주자산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전망대' 등 태권도원은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봄을 앞두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국민들께서 태권도원을 부담 없이 찾았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국기 태권도의 멋스러움을 느끼고 70만 평 자연 속에 위치한 태권도원에서 휴식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